

대우학술총서, 5백권 돌파해

취약한 국내 기초연구 수준 한단계 높여

대우학술총서가 《해석의 갈등》(폴 리코르, 양명수, 아카넷)을 펴내면서 5백권 출간을 기록했다. 1983년 11월 《한국어의 계통》(김방한, 민음사)을 처음 선보인 이래 18년만의 일이다.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학술출판이 외면당하는 국내 출판계에서 학술총서가 5백권을 돌파했다는 것은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대우학술총서는 5백권 출간이라는 양적인 의미뿐 아니라, 국내 기초학문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는 출간된 대부분의 책이 국내 연구가 거의 없는, '개척자' 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학술총서는 특히 연구과제 선정부터 연구결과 출판까지 일관성 있는 계획 아래 출간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도 학술출판의 모범을 보였다. 대우학술재단의 지원 아래, 학술협의회가 국내의 취약한 연구분야를 사전조사하고, 연구과제 선정부터 심사까지의 과정을 담당한다. 1981년부터 매년 평균 70여건씩 학술연구사업을 지원해 지금까지 총 1500여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500건이 대우학술총서로 발간됐다.

대우학술총서는 이런 노력과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각종 저작상과 출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86년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저술상을 받은 《한국지질론》(장기홍)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마키아벨리 평전》(리돌피, 광차섭)이 가담학술상 번역상을 받은 것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각종 출판·저술상을 수상하고,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출판관련 단체 <올해의



책》 등에 선정됐다.

대우학술총서가 20여년 동안 학술출판의 외길을 걸어오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지난 1997년 국내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체제로 들어가면서 대우그룹의 부도 여파로 재단예산은 줄었지만 학술지원 사업은 계속돼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지난 2~3년동안 출판사가 민음사에서 아르케, 아카넷으로 바뀐 것도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됐다.

아카넷의 정연재 출판팀장은 "대우학술총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꾸준히 발간돼왔다"며 "자생력이 부족한 우리 기초학문 발전에 일조해왔다"고 자평했다.

대우학술총서는 앞으로 현재 출간되고 있는 <논저> <공동연구> <번역> 시리즈 외에 <대우고전총서>와 <석학강좌> 시리즈를 새롭게 펴낸다. <대우고전총서>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을 비롯해 《철학의 원리》(데카르트) 《모놀로기온》(안셀무스) 《신앙과 지식》(헤겔) 등이 올 하반기에 출간될 예정이다. 또한 올 상반기에는 리처드 로티를 초청, 해외 석학 강좌를 열 계획이다. - 김정은 기자



신서원, 중국역사인물 99인 평전 기획해

첫권으로 《장강을 떠도는 영혼 - 굴원평전》 나와

신서원이 <중국역사인물 99인 평전> 시리즈를 펴낸다. 국내 전문가들이 집필하는 이 시리즈는 정치가와 군인, 역사학자와 철학자, 문학과 등 99인에 대한 평전이다. 고려대 중국학회 회원들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인물과 필자를 선정했다.

임성렬 대표는 "역사상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이 시리즈를 기획했다"며 "재미와 전문성을 동시에 추구해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판형을 B6변형으로 작게 하고, 화보와 관련사진을 실었다.

시리즈 첫권으로 나온 《장강을 떠도는 영혼 - 굴원평전》(신정규)은 초나라의 시인 굴원(?~BC. 278)의 삶과 사상을 다뤘다. 1장은 굴원의 삶과 그가 살았던 시대, 2장은 굴원이 창시한 초사(楚辭)의 특징과 굴원의 대표작 해설, 3장은 굴원이 후대의 중국문화에 끼친 영향을 설명했다.

신서원은 《장강을...》에 이어 곧 《상왕》(이춘식) 《한비자》(이승환) 《위정》(김택민) 《소동파》(이재훈) 《조설근》(최용철) 등을 펴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역사인물 99인 평전> 시리즈도 기획, 출간할 계획이다. - 김정은 기자